



WALL STREET 다이너마이트

GILLETTE FROM WALL STREET · 14

Wall Street 사가

나는 폭약을 두려워한 적이 없다. 오직 사람만 두려웠다.

다이너마이트는 적어도 정직하다. 도화선에 불을 붙인다. 무언가가 곧 사라지리라는 걸 안다.

사람은 다르다. 웃는다. 악수를 한다. 박수를 친다. 축하해 준다.

그리고는 20년 동안 당신 발밑에 조용히 지뢰밭을 만든다.

이상한 것은 젊을 때 아무도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노력을 가르친다. 규율. 인내. 희생. 점잖은 문명의 거룩한 미덕들.

그러나 세상이 사실이 아니라 해석으로 지탱된다는 경고는 아무도 해 주지 않는다.

한 남자가 성공한다. 열 사람이 그를 천재라고 부른다.

같은 남자가 모든 것을 잃는다. 같은 열 사람이 그가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아낸다.

바람의 방향 말고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나는 아주 늦게 배웠다, 평판은 빌리는 것이라는 걸. 인격은 소유하는 것이다.

앞의 것은 아침 식사 전에 사라질 수 있다. 뒤의 것은 파산에서도 살아남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빼앗길 수 있는 것을 지키느라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소홀히 한다.

환상을 파는 사람이라면 기막힌 비즈니스 모델이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깨어난다. 영적으로가 아니다. 철학적으로가 아니다. 육체적으로.

이를 닦는다. 커피를 끓인다. 밖을 본다. 그리고 갑자기 인지의 건축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

새로운 진실을 발견해서가 아니다. 낡은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어서다.

정치인들은 남아 있다. 전문가들도 남아 있다. 제도들도 남아 있다. 예언자들도 남아 있다.

억만장자들도 남아 있다. 텔레비전도 남아 있다. 인터넷도 남아 있다. 시장도 남아 있다.

모든 것이 남아 있다. 그 환각에 참여하겠다는 당신의 동의만 빼고.

문제는 그때 시작된다.

사회는 모든 것을 용서하니까. 실패. 빚. 이혼. 광기. 심지어 범죄까지.

그러나 사회가 결코 쉽게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더 이상 허락이 필요 없는 사람.

당신이 인정을 구하기를 멈추는 순간, 산업 전체가 고객 하나를 잃는다.

당신이 승인을 구하기를 멈추는 순간, 위계 전체가 존재 이유를 잃는다.

당신이 정체성을 구하기를 멈추는 순간, 부족 전체가 신병 하나를 잃는다.

그 시점에 사람들은 초조해진다. 아주 초조해진다. 자유는 전염되니까. 두려움보다 훨씬 더 잘 전염된다.

겁먹은 사람은 또 다른 겁먹은 사람을 만든다. 자유로운 사람은 불확실성을 만든다.

자유로운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자유로운 사람 자신조차도. 특히 그 자신은.

그래서 모든 문명은 남몰래 예측 가능한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

예측 가능한 소비자. 예측 가능한 유권자. 예측 가능한 임원. 예측 가능한 반항아. 예측 가능한 혁명가.

예측 가능한 혁명은 지금껏 발명된 것 중 가장 안전한 투자다.

진짜 다이너마이트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생각이다. 단 하나의 생각.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생각. 받아들이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생각.

이전의 모든 답을 수상쩍어 보이게 만드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일단 도착하면, 돌아갈 길은 없다.

건물은 그대로 서 있을지 모른다. 가구는 손대지 않은 채로 있을지 모른다. 서류들은 여전히 폴더 속에 가지런히 꽂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토대는 사라졌다. 폭발은 이미 일어났다. 소리 없이. 안에서.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당신 말고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

Ferdinando Frega
BLADEFREGA
다이너마이트